

선인장류

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선인장에는 수출용 점목선인장이 대부분이며, 삼각주, 비모란, 산취가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재발선인장, 백년초, 산세베리아 등 다양한 종류가 재배되고 있다.

뿌리썩음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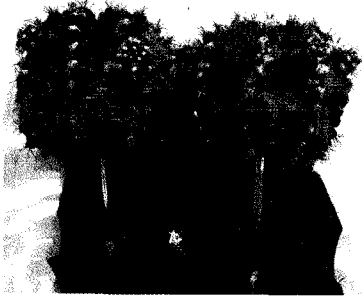
삼각주 선인장 줄기의 지제부 부터 암갈색 내지 흑색의 부정형 병반이 형성되고, 점차 병반이 확대되어 뿌리가 썩는다. 병든 식물체는 옆으로 잘 쓰러지며, 결과적으로 지상부도 말라 죽는다. 다습한 조건에서는 줄기의 표피와 유관속만 남고 다른 조직은 소실된다. 오래된 병반에는 주황색 분생포자 덩어리가 생기기도 한다. 생육기인 봄부터 가을에 걸쳐 발생하지만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피해가 심하다. 상처를 통해 감염됨으로 점목, 삼목, 가식시는 잘린 부위가 충분히 큐어링한 후 심는다. 이병주는 조기에 제거하고 선인장을 삼목하거나 점목할 때는 건전한 묘를 사용하고, 재배묘상이나 포트에는 건전한 상토를 사용해야 한다.

무름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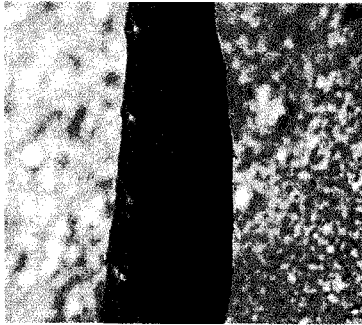
잎, 뿌리 등 포기전체에 발생하며, 다습조건에서는 물러 썩으며 악취를 발하고 끈적끈적 하게 무른다. 여름철 고온기에 많이 발생하고, 다습할 경우에는 병세의 진전이 빨라진다. 병원균은 세균의 일종이고 많은 작물에 기생하여 무름병을 일으킨다. 주로 식물의 상처부위로부터 침입하여 증식하고, 유조직을 부패시킨다. 병든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고 가능한 물을 적게 주도록 관리한다. 병발생이 심할 때는 살수처리시 수압을 약하게 한다.

줄기썩음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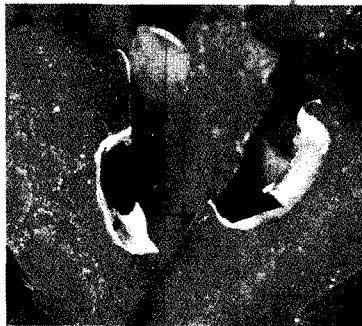
주로 삼각주와 비모란의 접목선인장에서 발생한다. 처음에는 연한 황색의 수침상 병반이 생기고 병반이 진전될수록 밝은 갈색으로 짙어지면서 말라 비틀어지거나 윗부분의 비모란에는 갈색의 부정형병반이 생기고 검게 변하면 썩는다.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 발생이 많으며, 선인장의 품종과 생육단계에 따라 다양한 병원성을 나타낸다. 바람과 물에 의해 전파되며 접목시 생긴 상처를 통해 침입한다. 피해물은 빨리 제거하여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관수시 저면관수를 한다.

바이러스병



선인장 CVX 바이러스 감염시 선인장에 모자이크, 황화현상을 보이는 반점을 나타내며 품종에 따라 증상을 나타내지 않거나 식물체 전체가 황화되는 경우도 있다. 꽃이 위축되고 꽃색이 불균일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식물즙액에 의해 쉽게 전염된다. 접목 선인장의 경우 주로 접목에 의해 전염되며 종자에 의해서는 전염되는 않는다. 작업시 칼 등의 기구를 통해서 전염되므로 이들을 열소독하여 사용한다. 바이러스 검정을 통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주를 확보하여 격리재배함으로써 접목선인장의 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달팽이류



달팽이는 연약한 조직을 갉아 먹으며 선인장에서 심각한 해충이다. 가해부위는 흰색의 식흔이 남고 식물체가 기형으로 자라거나 피해부위에 콜크가 형성되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온실에서는 연중 피해를 주며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하여 쉽게 이동하며,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달팽이는 대개 비가 온 후 대낮에 서식처에서 빗물을 따라 나오며, 저온다습과 빛은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육조건이다. 달팽이 전용약제로는 상추에 등록된 메티오카브입제, 인삼과 배추에 등록된 메트알데하이드입제가 있다.

파밤나방류



유충은 잡식성으로 채소, 화훼, 전작물 등을 가해하며 연간 4회정도 발생하며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0월까지 발생한다. 1회에 약 1,000 개정도 산란한다. 부화직후의 유충은 살충제의 감수성이 높아 약제방제의 효과가 높으나 3령 이후에는 방제가 어려운 시설내에서는 합성 페르몬을 이용 유인살충이 효과적이다. ☹